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년 10월 26일(화) 10:00
배포일시	2021년 10월 25일(월) 14: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장 (044-550-4603, jhshim@kdi.re.kr) 김은숙 KDI 경제정보센터 시민사회교육팀장 (044-550-4627, click@kdi.re.kr)

동아시아 경제교육 실태 진단 및 공조방안 마련

-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

- 일 시: 10월 26일(화) 10:00~18:00
- 장 소: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무궁화홀
- 주 최: KDI
- 주 관: 한국경제교육학회
- 후 원: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역경제교육센터

□ KDI는 한국경제교육학회와 함께 10월 26일 개원 50주년 기념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각 경제주체의 대응역량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
- 이에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추진전략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발전방안을 모색

- 이번 학술대회는 ‘경제교육의 도전과 과제’, ‘경제교육 실행 체계’, ‘금융교육 발전전략’으로 나누어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
- 홍장표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세계 각국이 경험하는 것으로 단위 국가가 아닌 범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며, 그 출발은 각국 국민의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이 처한 상황과 그 속에서 경제교육의 역할을 살피고, 국가 간 연대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김성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파고가 높은 지금, 경제교육 또한 과거 오프라인에 집중된 구조와 방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시대를 열어나아가야 하는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힘.
- 김경모 한국경제교육학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술적 논의가 더 심화되고 확대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교육 서밋과 같은 상설논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함.
- [제1부. 국가 수준에서 경제교육의 도전과 과제]에서 김진영 강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교육 역사를 고찰하며, 한국이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적인 경제교육의 방향 제시
 - 우리나라 경제교육은 현실의 경제문제를 간과한 채 이론 습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기본소득 도입, 조세 부담, 가계부채 등 현실의 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전개할 필요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감지혜 중국 선전하얼빈공업대학 교수**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에서 요구되는 중·고등 교육에서의 경제교육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
 - 중국은 2017년 표준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에서 다뤄졌던 주류경제학 부분을 대폭 삭제하고 중·고등 교육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발전과정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현실 경제문제 분석에 필요한 다각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국의 경제교육에 기초경제학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미즈노 카츠시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는 일본의 경제상황에 따라 경제교육의 역할이 변화했고 이는 학교 경제교육 내용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적 경제교육 사례를 소개
 - 일본은 1991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기업·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구·활동 수업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교육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힘.

- [제2부. 국가 수준에서 경제교육 실행 체계]에서 **추자오후이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은 경제적 위험 감소와 건전한 사회 창출을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전 초기 단계 수준의 중국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
 - 경제교육 시행을 위한 불충분한 정책적 근거, 불명확한 주제, 불확실한 내용을 개선하고 경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사 양성을 제안

- **오사카 히로시 일본 도야마대학 교수**는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일본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직무형 정사원 제도를 언급

- 이와 함께 직무형 정사원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직업적으로 의미 있는 교과 내용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
- 이소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경제교육 방식과 내용은 달랐지만 교육과정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학교 경제교육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가시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
 - 다만 경제교육이 체계화·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실생활과 유리됐고, 이로 인해 합리적 경제주체를 양성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기 경제교육 과정은 미래사회의 특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학생들이 경제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희망
- [제3부. 국가 수준에서 금융교육 발전 전략]에서 구리하라 히사시 일본 도요대학 교수는 2021년부터 시작된 신학습지도요령에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과 위험, 자산형성의 시점, 핀테크 등 금융교육 관련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
 -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추진시책의 일환인 동시에 성인 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른 금융문제의 사전 방지,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춘 노후 생활비 확보의 필요성 등이 금융교육 강조의 배경이라고 설명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윤호 순천대학교 교수는 금융교육 유관 기관의 분산적 교육 개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조정해야 하며, 학교 경제·금융교육 과정을 가계 또는 개인 재무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
 - 금융교육 정책 수립 시 국민의 금융역량 관련 취약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교육 목표의 수립과 실행, 실행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환류 체계가 구축돼야 함을 강조

- 특히 금융교육의 정책목표를 ‘금융역량’으로 삼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
-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교육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금융이해력이 낮거나 현재 혹은 미래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거나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자발적 채널은 이해상충, 비합리적 경제인의 거부, 금융교육의 투자 사교육화 현상 등으로 인해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계약자유원칙은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하지만 시장에는 비합리적 투자자가 다수 존재하며, 의무적인 금융교육은 이들의 비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계약의 하자를 치유하는 기능을 수행
- 이번 학술대회는 KDI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국제행사로 이후에도 KDI는 경제교육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홍장표 KDI 원장, 김성진 경제교육단체협의회회장, 김경모 한국경제교육학회장, 각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총 참석자 수는 50인 이하로 제한되나 KDI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 **첨부 1. 세부 일정**
-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 **첨부 3. 연사 프로필**
- ❖ **첨부 4. 행사 포스터 파일**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0:00~10:30	개회식 환영사 홍장표 KDI 원장 축 사 김성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축 사 김경모 한국경제교육학회장
10:30~12:15	세션 1. 국가 수준에서 경제교육의 도전과 과제 좌 장 한경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 표 1. 한국의 국가적 경제 과제와 경제교육 방향 김진영 강원대학교 교수 토 론 1. 배광웅 일본 오사카교육대학 교수 발 표 2. 중국의 경제성장과 경제교육 감지혜 중국 선전하얼빈공업대학 교수 토 론 2. 심재학 KDI 경제교육실장 발 표 3. 경제교육 실행의 발자취 미즈노 카츠시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 토 론 3. 김경모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14:00~15:45	세션 2. 국가 수준에서 경제교육 실행 체계 좌 장 서은숙 상명대학교 교수 발 표 1. 중국 국민 경제교육 현황과 개선 탐색 추자오후이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 토 론 1. 김영우 서원대학교 교수 발 표 2. 일본의 경제교육 제공 시스템 오사카 히로시 일본 도야마대학 교수 토 론 2. 박영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발 표 3. 한국 경제교육과정의 변천 이소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토 론 3. 황시우핑 대만 타이퉁국립대학교 교수
16:00~17:45	세션 3. 국가 수준에서 금융교육 발전 전략 좌 장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발 표 1.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으로 본 금융교육 구리하라 히사시 일본 도요대학 교수 토 론 1. 김용민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발 표 2. 한국의 금융교육의 과제와 발전 전략 이운호 순천대학교 교수 토 론 2. 황보루이 대만 타이퉁국립대학교 교수 발 표 3. 금융교육의 모멘트: Voluntary vs. Mandatory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3. 김광호 한양대학교 교수
17:45~18:00	질의응답 및 폐회

세션 1. 국가 수준에서 경제교육의 도전과 과제

발표 1. 한국의 국가적 경제 과제와 경제교육 방향

김진영 강원대학교 교수

- 역사적으로 극심한 경기 변동기에 제도 개선 및 교육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경제교육은 각 시기의 경제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학교 경제교육이 등장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됨.
 - 미국의 초기 경제교육은 노동조합과 기업가들이 초석을 다졌고 이후 학계와 교육계가 주도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경제교육에서 금융교육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
 - 한편 한국의 경제교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정부의 정책 홍보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됨.

- 현재 한국이 직면한 경제과제로 사회보장제도와 증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등이 있으며 이를 경제교육에서 다룰 필요
 -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심화,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높으며 사회·경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함.
 - 경제학 개념과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금 부담, 가계부채 등 경제현안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진행해야 함.

발표 2. 중국의 경제성장과 경제교육

감지혜 중국 선전하얼빈공업대학 교수

-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육 수준에서 중·고등 경제교육에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 제고
 -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은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
 - 지역별 고등교육 기회의 차이는 중국의 학교 경제교육 형식과 내용의 차이를 야기함.

- 2017년 중국의 개정된 표준교육과정을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에서 중·고등 교육에서의 경제교육 내용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분석
 - 중국 표준교육과 이후 중등학교 경제교육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나 개념을 대폭 축소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발전과정, 정당성에 대한 비중을 확대
 - 경제교육의 비중이 축소된 중등학교 경제교육과 대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제·경영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에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됐음을 의미함.

-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경제적 사고 증진을 위해 학교 경제교육 내용에 주류경제학 내용을 추가하는 포괄적인 경제교육을 제안
 - 중국의 현행 학교 경제교육은 학생들의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주류경제학에 대한 학습은 제한적
 - 또한 실용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재해석될 수 있는 타 분야의 경우 응용력을 높이기에는 한계

발표 3. 경제교육 실행의 발자취

미즈노 카츠시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

- 일본의 경제상황은 경제교육의 역할을 변화시켰고 학교 경제교육의 내용과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음.
 - 일본의 학교 경제교육은 교사 주도의 강의가 일반적이었으나 1991년 거품붕괴 이후 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방적인 교육방식에 문제를 제기
 - 장기 경기침체로 기업이익이 악화된 일본 회사들은 사내 신입사원 교육진행이 어려워지자 대학에 그 역할을 요구했고 초중등 경제교육에도 영향을 줌.
- 일본의 경제교육 변화 요인과 초중등 교육개혁 이후 실천적 교육을 지향하는 일본의 경제교육 사례 소개
 - 대학 간 경쟁 촉진으로 다양한 수업방식이 시도됐고 기업·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구·활동 수업 및 인턴십 등을 실시함.
 -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베트남·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진행한 현장 수업 등 액티브러닝 사례 언급
- 향후 일본 경제교육계가 풀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함.
 - 일본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시급하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교육을 생각해야 함.
 - 청년층의 보수화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경제교육의 역할을 고민해 볼 필요

세션 2. 국가 수준에서 경제교육 실행 체계

발표 1. 중국 국민 경제교육 현황과 개선 탐색

추자오후이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

- 경제교육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가치와 부의 개념을 발전시키며, 개인의 경제활동과 생존을 위한 핵심역량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올바른 경제습관을 기르고, 경제적 책임을 지고, 현명한 계획과 결정을 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적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중국의 경제교육은 많은 학술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발전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발전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
 - 고등교육에서 경제교육은 취업 예정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시행
 - 그러나 고등학교 이전의 중국 경제교육은 아주 취약한 상태로 대다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경제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 중국경제의 발전으로 경제교육 활성화는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
 - 경제교육 시행을 위한 불충분한 정책적 근거, 불명확한 주제, 불확실한 내용을 개선할 필요
 - 경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위상을 높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수행이 가능한 교사를 양성할 필요

발표 2. 일본의 경제교육 제공 시스템

오사카 히로시 일본 도야마대학 교수

- 업무 관련 실적이나 자격을 취업 전 가지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직무형 정사원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
- 직무형 정사원이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나 대학이 졸업자의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의미 있는 교과 내용을 가르쳐야 함.
 - 하지만 일본의 고등학교와 대학은 직업적으로 도움이 될 교육의 양이 적은 상황
 - 이는 노동·교육정책이 공공 직업교육이 아닌 다양한 사내교육을 조성하는 형태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직업에 도움이 될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은 정사원 대상의 사내교육으로 한정된 부분에 기인
- 직업능력 평가기준에 근거해 기업의 업무내용에 부합하는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의 의의를 갖추게 해야 할 필요
 - '정형적 업무', '기획입안 업무', '관리 업무'의 순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는 업무 과정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획입안' 단계의 업무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

발표 3. 한국 경제교육과정의 변천

이소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경제교육 방식과 내용은 달랐지만, 교육과정 개정을 거듭하며 학교 경제교육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장을 이룸.
 - 초등학교의 경우 교수요목기 경제교육은 여러 요소와 통합해 이뤄졌으며, 중학교에서는 공민 영역에서 경제교육을 다룸.
 - 국가 부흥 및 생활 개선을 강조하던 시기에는 다양한 경제 개념을 다루고 학교급에 따라 체계를 갖추려 노력, 경제학 이론에 근거해 단원을 구분하고 내용을 구성
 - 1980년대 이후 경제교육 강화 기조에 따라 이수 단위가 상향 조정, 사회과 내 경제 단원의 양적 증가로 이어짐.
 -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 개념 및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금융 단원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강조했으며 경제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도 경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경제교육이 체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경제 개념 및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교육 내용이 실생활과 유리됐고, 이로 인해 합리적 경제 주체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 향후 경제교육 과정은 미래사회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폭넓게 반영할 필요, 학생들이 합리적인 경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기대

세션 3. 국가 수준에서 금융교육 발전 전략

발표 1.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으로 본 금융교육

구리하라 히사시 일본 도요대학 교수

- 2021년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신(新)학습지도요령에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과 위험, 자산형성의 시점, 핀테크 등 금융교육 관련 학습이 강조됨.
 -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추진 시책의 일환인 동시에 성인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른 금융문제의 사전 방지,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춘 노후 생활비 확보의 필요성 등이 금융교육 강조의 배경
- 신(新)학습지도요령에 따라 학교 내 금융교육 강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 금융교육이 깊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 한정된 수업시간, 입시 대응 등을 고려할 때 금융교육 관련 수업을 위한 시간 확보 필요
 - 교사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의 교사가 '금융교육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응답, 교사의 금융교육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 양성과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의 기본방향 검토 필요
 - 교육내용의 체계화, 금융교육 관련 교육과정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과의 원활한 연계·협동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함.

발표 2. 한국의 금융교육의 과제와 발전 전략

이윤호 순천대학교 교수

- 메타분석을 통해 금융교육의 효과를 금융지식·행동·태도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금융지식 측면에서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면 방식의 교육일수록, 피학생자 주도적 교육일수록, 피학생자의 금융 경험이 개입된 수업일수록, 주당 수업시간이 긴 집중된 수업일수록,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일수록 금융교육의 효과성은 높게 측정
- 경제학원론 체계를 따라 학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가계 또는 개인 재무 중심의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함.
 - 추상적인 경제학 개념보다는 학생의 실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와 내용을 편성하고, '실용경제' 교과를 '금융경제' 과목으로 대체 신설해 학교 금융교육을 양적으로도 보완할 필요
- 금융교육은 소비자 개인의 역량 강화 뿐 아니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줄여줌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므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 전략 수립·실행이 필요
 - 국가 차원에서 금융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유관 기관의 개입을 통합·조정해 나가야 함.
 -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등 증거에 기반해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측정 가능한 금융교육 목표의 수립과 실행, 실행된 교육에 대한 평가·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
 - 금융교육의 정책적 목표로는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 보다 국민경제의 상황과 분리되어 측정되는 '금융역량'으로 삼는 게 더욱 바람직함.

발표 3. 금융교육의 모멘트: Voluntary vs. Mandatory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살률은 금융위기마다 급등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이는 금융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임.
- 금융교육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문제, 금융이해력이 낮거나 현재 혹은 미래에 필요한 사람에게서는 금융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
 - 자발적 채널은 이해 상충, 비합리적 경제인의 거부, 금융교육의 투자 사교육화 현상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계약자유원칙은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하지만 시장에는 비합리적 투자자가 다수 존재하며, 의무적 금융교육은 이들의 비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계약의 하자를 치유하는 기능을 수행
- 대부분의 금융교육은 개인 자산관리 원칙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 학교 금융교육 의무화와 직장 내 금융교육이 필요
 - 영국과 미국의 경우 학교 내 금융교육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국내에서는 수능을 이유로 경제·금융교육이 학교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
 - 직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설계가 시작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지만 직장인 금융교육은 거의 전무한 실정
 - 직장 내 금융교육은 가계의 일반적인 저축 및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

❖ 첨부 3. 연사 프로필

환영사	
홍장표 KDI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KDI 원장 ○ 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 前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축사	
김성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 前 한경대학교 총장 ○ 前 해양수산부 장관 ○ 前 중소기업청 청장
축사	
김경모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경상국립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現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 前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회장 ○ 前 대구대학교 교수

세션 1. 국가 수준에서 경제교육의 도전과 과제

한경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現 한국경제교육학회 부회장
- 前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前 동아일보 자문위원

발 표 1. 한국의 국가적 경제 과제와 경제교육 방향

김진영 강원대학교 교수



- 現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前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장
- 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위원
- 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발 표 2. 중국의 경제성장과 경제교육

감지혜 중국 선전하얼빈공업대학 교수



- 現 중국 선전하얼빈공업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교수
- 現 한국경제교육학회 국제교류주임

발 표 3. 경제교육 실행의 발자취

미즈노 카츠시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



- 現 일본 메이지대학 상학부 교수
- 現 일본 메이지대학 경제교육연구센터 대표
- 現 일본경제교육학회 이사

세션 2. 국가 수준에서 경제교육 실행 체계

서은숙 상명대학교 교수



- 現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前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플운영위원회 위원
- 前 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위원
- 前 상명대학교 기획처장

발 표 1. 중국 국민 경제교육 현황과 개선 탐색

추자오후이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



- 現 중국교육과학연구원 교육이론연구소 연구원
- 現 중국지방교육사연구회 부회장
- 現 중국교육학회 학술위원

발 표 2. 일본의 경제교육 제공 시스템

오사카 히로시 일본 도야마대학 교수



- 現 일본 도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발 표 3. 한국 경제교육과정의 변천

이소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現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센터 연구위원
- 現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이사
- 現 한국경제교육학회 이사

세션 3. 국가 수준에서 금융교육 발전 전략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現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前 OECD Development Centre Senior Economist
- 前 기획예산처 장관자문관 및 전략기획관
-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발 표 1.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으로 본 금융교육

구리하라 히사시 일본 도요대학 교수



- 現 일본 도요대학 문학부 교육학과 교수
- 現 일본사회과교육학회 평의원, 연구추진위원회 위원장
- 現 일본공민교육학회 상임이사, 학회지편집장
- 現 일본증권업협회 금융·증권교육지원위원회 공익위원

발 표 2. 한국의 금융교육의 과제와 발전 전략

이윤호 순천대학교 교수



- 現 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現 기획재정부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
- 前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회장
- 前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발 표 3. 금융교육의 모멘트: Voluntary vs. Mandatory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現 은행법학회 부회장
- 現 한국금융법학회 은행법 연구이사
- 現 한국지급결제학회 이사

❖ 첨부 4. 행사 포스터 파일

